

# 축 사

대학도서관의 운영, 발전과 학술정보의 교류 확대 문화 정착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대학의 관장님을 비롯한 도서관 선생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느 때보다 화려한 옷으로 갈아 입은 관악의 가을을 물씬 느낄 수 있는 날입니다.

이런 오늘 제가 대학의 연구, 학습 역량의 극대화를 위해 도서관에서 그 역할을 다 하고 계신 여러분들과 자리를 같이 하게 되서 진심으로 기쁩니다. 또한 대학도서관의 현안과 발전 사례들을 공유하고 공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도서관·정보학 학술세미나’가 매년 개최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특히 올해 세미나를 서울대학교에서 개최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고 반갑습니다.

그간 세미나를 개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이상귀 회장님을 비롯하여 중앙도서관 홍성걸 관장님과 도서관 직원분들께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신 참석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 소중한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께 어떤 축사를 할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보 환경 변화에 따른 도서관의 변화나, 정보 이용자들의 정보추구행태 변화 등에 대해서는 저보다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전문도 아닌 것을 운운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다만 대학에서 교육을 하고 연구를 하면서 대학의 경쟁력,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것은 무엇보다 학술 경쟁력이라 생각해 왔고, 학술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도서관과 같은 학술지원기관과 사서들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연구, 교육에 필요한 학술정보가 무엇인지, 또 그 정보들을 어떻게 찾아내어 제때 확보하고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은 학생이나 교수, 그 분야의 연구자와 같은 이용자의 몫이 아니라 그런 이용자를 지원해주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술 경쟁력에 도움이 되는 지원 업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의 전문성 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연구자들이 필요한 학술정보와 자료를 제때 신속하고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물론이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새로운 정보를 만나고 마음대로 탐험할 수 있는 정보의 보고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예산을 들여 구비한 자료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자료를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는 주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일은 예산만 많이 투입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끊임없이 탐구하고 노력해서 도통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최근에는 생산되는 저널도 많고 학문간의 학제적 연구나 융합적 시도도 많은데다 DB도 다양하고 서로 묶여 있는 방식도 각각이라 이 모든 것을 꿰고 있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수한 지식자원들을 자료로서 가공하고 정보를 생산하고 또 제공하는 일이야 말로 여러분들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 아닐까요?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여러분의 귀한 시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정보를 나누고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로 깊이 있게 하는 귀한 학술 세미나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0월 13일

서울대학교 교육부총장 박찬욱